Vol. 33
여름 호

좋은Gyo6
나·눔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편 집 교육과정부
발행인 박용휘
발행일 2024년 7월 1일

'탄소Zero' 실천으로 종이인쇄물을 발간하지 않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선제적 현장 적용'

"학교자율시간 운영의 실제"

SUMMARY | 요약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을 도입하여 교육공동체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지역 연계 활동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자율시간의 도입은 '주어진 교육과정'에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으로의 실질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학교 교육과정을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작용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임을 인식하고 교사가 주어진 교육과정을 단순 실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개발자 혹은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이 학습 목표와 내용,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학습자의 주도성과 역량을 기를 수 있다.

학교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 외에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운영하고, 내용은 학생의 필요와 지역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가 결정하며 교과 통합형, 언어·수리·디지털 소양 강화형, 지역 연계형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학교는 학교자율시간을 반드시 편성·운영해야 하며, 운영 학년·학기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결정한다.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 수의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학기 단위로 운영한다.
시수 확보 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따라 교과(군)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20% 범위 내 시수 증감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체육 및 예술(음악/미술) 교과(군)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할 수 없다. 그리고 감축된 수업 시수로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모두 이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점검해야 하며,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균형 있는 학습을 위하여 특정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수가 지나치게 감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시간, 학교자율시간

명호초등학교 교사 유대길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시간, 학교자율시간 명호초등학교 교사 유대길

01 들어가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다양한 시도와 변화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학교자율시간'의 도입이다. 본교는 교육부 요청으로 3년간 '학교자율시간'에 중점을 두고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1, 2년차에는 교과 외 '활동'을 개발하여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하였고 3차년도인 올해는 교과 외 '과목'을 개발하고 있다.

02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모델

학교자율시간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아래의 2가지는 본교가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운영 모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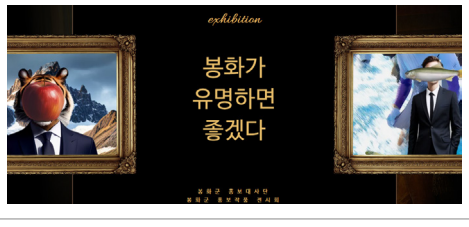
운영 모델	설명
교과 통합 설계형	교사가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 상황 또는 여러 교과의 지식을 통합하여 활용해야 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학습자가 교사 및 또래와의 다양한 상호작용과 탐구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적용
학생 주도 설계형	학습자가 교사의 코칭을 받아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교사 및 또래와의 다양한 상호작용과 탐구를 통해 교과의 내용을 심화 확장하는 형태

03 교과 통합 설계형의 활동 사례

〈교과 통합 설계형〉

본교는 2023년 1학기에 교과 통합 설계형을 활용하여 교사가 특정 상황이나 주제를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목표와 과제, 평가 방법, 활동 계획 등을 세워 운영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아래는 '문화'라는 영역 속에서 교사가 제시한 '우리 고장 자랑하기'라는 키워드를 통해 운영한 사례이다.

영역			문화를 즐기는 아이들	
설계 모델			교과 통합 설계형	
구분	지도 대상	배움 키워드	배움활동명 (시수)	주요 활동 내용
학교 자율 시간	3학년	우리 고장 자랑하기	우리는 봉화군 홍보대사단! (20차시)	• 우리 고장 자랑거리 찾기 • SNS로 우리 고장 자랑하기 • 우리 고장 자랑 준비하기 • 우리 고장 홍보 작품 전시회 열기



문화를 즐기는 아이들

04 학생 주도 설계형의 활동 사례

2023년 2학기에는 학생 주도 설계형을 활용한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하였다. 학생들이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여 배움 모둠을 이루었으며 전체 학생 수가 46명인 학교에서 12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담임 교사 혼자의 힘으로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거라는 판단하에, 협력교사제를 도입하여 각 배움 모둠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영역		꿈을 찾는 아이들			
설계 모델		학생 주도 설계형			
지도교사 협력교사	배움 키워드	배움 모둠명 (시수)		주요 활동 내용	
3학년 담임 전담교사	진로탐색	금쪽 꿈 상담소 (20차시)		•다양한 직업 알아보기 •꿈 선택 방법 알아보기	•나의 꿈 돌아보기 •꿈 상담소 운영하기
4학년 담임 보건교사	건강체력	K스포츠 (20차시)		•건강체력 종류 알아보기 •건강체력 향상법 조사	•건강체력 향상 시키기 •사전·사후 체력 측정
5학년 담임 전담교사	자기 관리 능력 향상	Sierra(청순한) (20차시)		•건강한 피부와 손톱의 조건 •피부관리와 네일아트 방법	•피부관리와 네일아트 실천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
특수교사 6학년 담임	장애 편견 깨기	넌 할 수 있어 (20차시)		•좋은 관계 형성하기 •그림 실력 파악하기	•기본 능력 올려주기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 학생 주도 설계형 활동 사진 〉

05 마치며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하는 것은 마치 교과서라는 잘 차려진 밥상을 치우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여 밥상을 다시 차리는 일과 같다. 이 과정은 힘들 수 있으며,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까?'와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된 작업 속에서 학생들과 더 많은 소통과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소중하고 멋진 경험을 하게 된다. 학교자율시간의 도입이 가까워진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에 적응하고 받아들이는 주체성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2022 개정교육과정 학교자율시간 운영 사례

문덕초등학교 교사 박민규

2022 개정교육과정 학교자율시간 운영 사례 문덕초등학교 교사 박민규

0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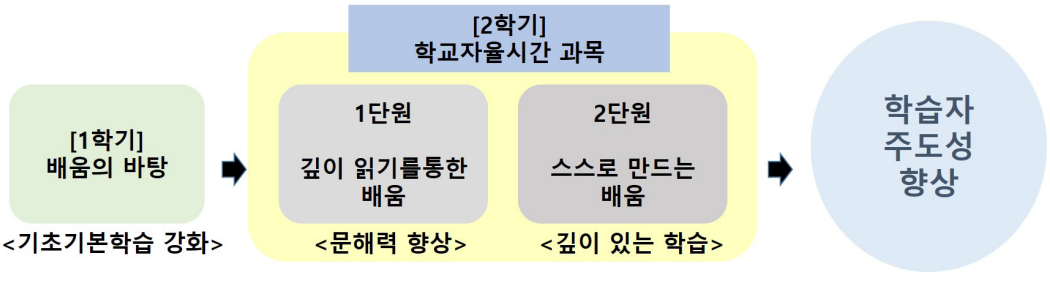
올해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현장에 적용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목할 부분은 '학교자율시간'이다. 학교자율시간은 학습자 주도성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시간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학교 3차년도에 접어든 문덕초등학교에서는 '맞춤형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통한 학습자 주도성 향상'이라는 주제로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02 학교자율시간이란?

학교자율시간은 주어진 교육과정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의 변화를 위해 3~6학년별로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수의 학기별 1주의 시간을 확보하여 학기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 학년, 학기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 외에 교육공동체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를 반영하여 학교가 결정한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03 문덕초등학교 연구과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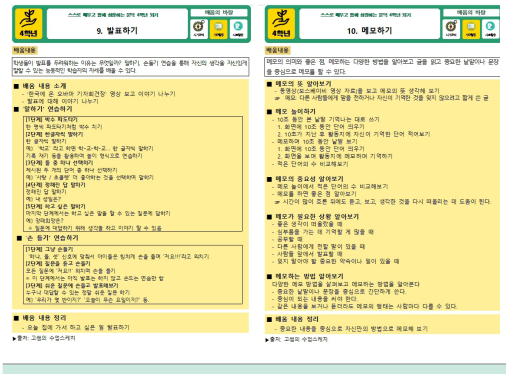
학습자 주도성 향상을 위한 문덕초등학교의 연구과제는 '배움의 바탕'과 '학교자율시간 과목'으로 나누어진다.



〈배움의 바탕 워크북〉

가. 배움의 바탕

1학기에 운영되는 '배움의 바탕'은 기초•기본 소양 강화를 위한 활동이다. 배움의 바탕은 자기관리, 기반활동, 자료활용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학년초 학급 세우기에서부터 시작하여 학생들이 질문 만드는 방법, 발표•토론방법, 다양한 매체 활용 방법을 익히는 시간이다. 이를 위해 교사용 워크북과 학생용 워크북을 개발하여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배움의 바탕 워크북(교사용)

배움의 바탕 활동 모습

나. 학교자율시간 과목

2학기에 운영되는 문덕초등학교의 학교자율시간은 3, 4학년 29차시, 5, 6학년 32차시의 과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학년별 각 과목은 2개의 단원으로 구성되며 1단원에서는 한 권의 책을 깊이 있게 읽고 다양한 샛길 활동을 하는 '깊이 읽기를 통한 배움'이 진행된다. 2단원에서는 1단원의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만드는 배움'(학생생성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학년	과목명	1단원	시수	2단원	시수	총시수
3	감정수업 (만복이네 떡집)	깊이 읽기를 통한 배움	14차시	스스로 만드는 배움 (학생생성교육과정)	15차시	29차시
4	환경과 우리생활 (탄소중립이 뭐예요?)					
5	역사문학탐구 (서찰을 전하는 아이)		17차시		15차시	32차시
6	자기이해와 진로탐구 (불량한 자전거 여행)					

각 단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자율시간 과목 1단원] 깊이 읽기를 통한 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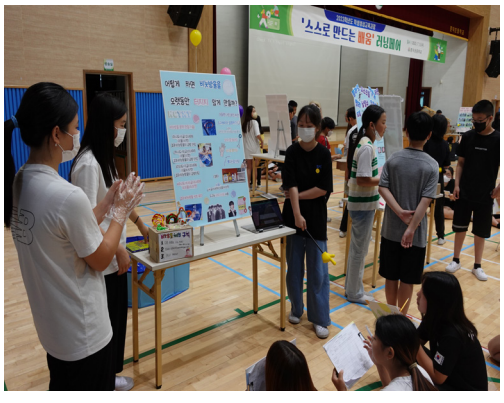
1단원은 문해력 및 언어 소양 강화를 위해 학문간 융합의 소재가 반영된 도서를 선정하여 깊이 읽고 생각을 넓혀 학습의 전이가 일어나는 독서 활동을 하는 단원이다. 도서의 내용과 학생의 삶을 연계하여 실생활 맥락 속 탐구 질문을 중심으로 활동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2학기 적용을 위해 학년별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는 중이다. 특히 이 단원은 '질문이 넘치는 단원'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이 단원을 학습하며 질문의 유형과 방법을 익힐 수 있는 단원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스스로 만드는 배움 워크북〉

2) [학교자율시간 과목 2단원] 스스로 만드는 배움

2단원은 1단원에서 학습한 융합학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질문을 통해 배움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성찰해 보는 경험(학생생성교육과정)을 하는 단원이다. 학년간 위계성을 설정하기 위해 주제의 범위와 개수를 신중히 고려하였다. 처음부터 개방형 주제나 다양한 주제를 운영하기보다는 3~6학년의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위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소통과 협력의 발표를 통한 공유와 성찰 경험 제공을 위해 학년별 러닝페어를 개최하며, 러닝페어와 질문대회를 연계하여 문덕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러닝 페어(3,4학년)



러닝 페어(5,6학년)

04 나가며

문덕초등학교는 올해 10월에 3년간의 연구를 마무리하는 종결보고회를 앞두고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자료를 개발 중에 있다. '맞춤형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통한 학습자 주도성 향상'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교육공동체와 함께 공유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학교자율시간의 빠른 현장 안착을 기원한다.